

창사 이래 최대규모 '빅딜'...북미 시장 공략 가속도

네이버, 美 최대 C2C 플랫폼 2조3441억에 인수

〈소비자 간 거래〉

미국판 당근마켓 '포쉬마크' 인수 장기적인 커머스 경쟁력 위해 추진 소셜·커뮤니티 기능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경험 통해 현지 MZ세대 공략



네이버가 북미 최대 패션 소비자 간 거래(C2C) 커뮤니티를 인수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고삐를 쥔다. 네이버는 소셜·커뮤니티에 강점을 가진 '미국판 당근마켓' 포쉬마크를 2조3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빅딜'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IT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북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특히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커머스까지 미래 핵심 소비자가 될 현지 MZ세대의 관심 분야를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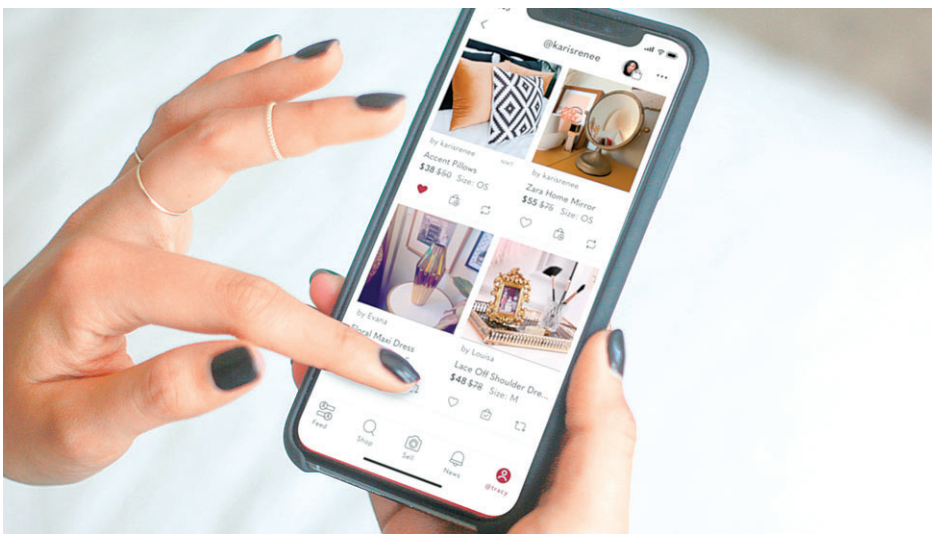
●글로벌 C2C에 선제적 대응

네이버는 포쉬마크의 지분 100%를 2조3441억 원에 인수한다고 4일 밝혔다. 포쉬마크는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의 '당근마켓'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인스타그램처럼 소셜·커뮤니티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사용자는 지역별 피드와 팔로잉 구성이 가능하고, 팔로우한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며 취향에 맞는 아이템이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다.

포쉬마크는 2011년 설립 이후 총 8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C2C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해 기준 연간 거래액(GMV)은 18억 달러, 매출은 3억3000만 달러다.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다. 액티베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미국 중고 시장은 2025년 약 1300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버티컬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거센 글로벌 C2C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기적인 커머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패션이나 한정판 혹은 명품 등 한정된 카테고리 내에서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 간의 거래 플랫폼인 버티컬 C2C 시장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실제로 이번 포쉬마크 인수를 통해 북미 지역을 거점으로 한국·일본·유럽을 잇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네이버가 인수하는 북미 최대 패션 C2C 커뮤니티 '포쉬마크' 서비스.

사진제공 | 네이버

구축했다. 네이버는 국내에선 '크림', 일본에선 '빈티지시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에선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에 투자했다.

●북미 MZ세대 공략

네이버는 포쉬마크 인수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포쉬마크 사용자 중 MZ세대는 약 80%에 달한다.

네이버는 북미 지역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웹툰, 왓패드들 중심으로 한 스토리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포쉬마크를 통한 커머스 사업 간 시너지 연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네이버가 보유한 검색 및 인공지능(AI) 추

천과 비전 기술, 라이브 커머스, 커뮤니티 플랫폼, 광고플랫폼 등을 활용해 포쉬마크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신규 비즈니스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대규모 사용자를 보유한 포쉬마크와 함께하면서, 네이버는 북미 MZ세대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IT 산업 본진인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기업으로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거듭하며 한 단계 높은 성장을 기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핵심 사용자들에게 C2C 쇼핑, 웹툰, K팝 콘텐츠를 넘나드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C2C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파리바게뜨, 佛 '몽파르나스점' 오픈 올해 3개 점포 열어...유럽 공략 박차

오피스 상권 특성 고려해 '그랩앤고' 코너 강화

SPC 파리바게뜨가 4일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 지역에 '몽파르나스점' (사진)을 오픈했다.

올해 상반기 파리 외곽의 현대적 상업 지구인 라데팡스 지역에 문을 연 3호점 보엘디유, 4호점 코톨 집에 이은 5번째 점포다. 라데팡스와 몽파르나스 지역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한 오피스 상권이 핵심 상업지구다. 특히 몽파르나스의 경우, 몽파르나스역이 있어 파리 시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몽파르나스점은 테라스를 갖춘 149㎡, 67석 규모의 카페형 매장이다. 오피스 상권과 기차역 앞에 위치한 상권 특성을 살려 샌드위치와 스낵킹 메뉴 등 '그랩앤고' 코너를 강화했다. 입구에 고풍스러운 건물과 잘 어우러지는 목재 캐노피(비바람을 막기 위해 지붕을 연장하는 양식)를 설치하고, 매장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와플, 샌드위치, 커피 등의 메뉴를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한편 SPC 파리바게뜨는 올해 미국 '프랜차이즈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톱 500'에서 25위에 올랐다. 전년도 순위인 38위보다 13계단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향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인트 벤처, 마스터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2027년 1.4나노 반도체 양산”...가속도 붙는 이재용의 기술 초격차

‘삼성 파운드리 포럼’서 신기술·사업 전략 공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적극 공략...ARM 저울질도

삼성전자가 27년 1.4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을 도입한다. 또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ARM에 대한 투자도 저울질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술 초격차 전략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를 열고, 신기술과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 포럼이 오프라인에서 열린 것은 3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술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이재용 부회장(오른쪽).

사진제공 | 삼성전자

2015년 핀펫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또 지난 6월에는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한 3나노 1세대

공정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앞선 노하우를 바탕으로 3나노 응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HPC(고성능 컴퓨팅), 오토모티브(차량용 반도체), 5G, IoT(사물인터넷) 등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해, 2027년까지 모바일을 제외한 제품군의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키워간다는 목표도 내놔다. 미국을 시작으로 7일 유럽, 18일 일본, 20일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ARM에 대한 투자 여부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방한 중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격이 높은 데다 독과점 이슈 등도 있어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인수를 추진하거나, 지분 투자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명근 기자

폴란드 간 구광모 LG회장...공장 방문·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폴란드 총리 예방...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현지 LG엔솔 배터리 공장 점검...구성원 격려

구광모 LG 회장이 폴란드의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했다. 또 폴란드 총리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요청했다.

구 회장은 3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를 예방했다. 구 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LG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데는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구광모 LG 회장(왼쪽)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사진제공 | LG

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통의 장이 부산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 한국의 모든 국민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어느 나라보다 열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LG는 지난 달 말부터 바르샤바에 위치한 쇼팽

국제공항 내 11기의 디지털 사이니지와 유동 인구가 많은 클로테 타라시 백화점 외부 대형 전광판에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구 회장은 4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도 방문했다. 브로츠와프 공장은 연간 약 100만대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연 70GWh)을 갖춘 곳으로, 유럽의 주요 완성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구 회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브로츠와프 공장을 LG 미래차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킨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LG는 LG전자가 1997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25년 동안 폴란드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생산법인의 경우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이노텍이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LG전자가 그와 바에 각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 위암·대장암 조기 발견할수록 초기 완치율 높아져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암 발병 순위는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 대장암, 위암이 나란히 3, 4위를 차지했다.

위암의 경우 발병 초기에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가벼운 소화기 이상 증세로 치부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위암 검진 대상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가족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2년에 1회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한다.

위암 유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위장질환 환자인 경우라면 연 1회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잦은 구토, 수시로 나타나는 연하곤란,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위장 출혈(흑변), 지속적인 빈혈 등을 겪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대장암 역시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는데 드물게 장 출혈에 따른 빈혈,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한다면 매우 높은 초기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가장 효과적인 대장암 조기 발견 방법이다. 대장암 대부분은 대장에 생긴 작은 혹인 선종성 용종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대장 용종 발견 시 미리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만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다정한내과 최현석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